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방법

시편 137편

크리스 식스 목사

2023년 5월 14일 설교

이번 주에 우리는 설교 시리즈를 위해 시편 137편을 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

시편 137편에는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사로서 제 일은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세 종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은 때로 시온이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기도문을 썼을 때 저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BC 587년 7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왕의 눈을 자르고 대부분의 유대 백성과 함께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시편 137편을 썼습니다.

언급된 다른 종족 그룹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에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녀의 아들들이 두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다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과 에돔 열국은 그들의 조상이 어린 시절처럼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여러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을 때 에돔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저자들의 끔찍한 분노의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구절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137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우리가 우리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3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불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4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외국에 있을 때?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숨씨를 잊어버리게 하소서.

6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7 여호와여 예돔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찢어라” 그들은 외쳤다.

“그 기초까지 허물어 버리십시오!”

8 멸망할 딸 바벨론아,

당신에게 갇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일에 따라.

9 네 젓먹이를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위에 부딪히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살아있는 말씀이시니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집중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기 위해 당신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시편 137편의 구절들을 순서대로 훑어볼 것이므로 몇 분 후에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문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우리가 우리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3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를 요구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저자는 그들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로로 잡힌 후 그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오락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노래도 기쁨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다음으로 4-6절은 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고뇌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표현합니다.

4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외국에 있을 때?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숨씨를 잊어버리게 하소서.

6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슬픔과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집을 너무 그리워서 명확한 음을 부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를 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곳에서 겪은 박해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 저자들이 2,500년 전에 느꼈던 깊은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또 다른 깊은 감정은 충성심입니다.

바벨론 도시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충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아이러니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불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충실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새롭게 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안전과 기쁨의 진정한 근원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함께 7절을 봅시다.

7 여호와여 에돔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찢어라" 그들은 외쳤다.

"그 기초까지 허물어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에돔 사람들이 멸망을 부추겼기 때문에 저자의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촌들에 대하여 바벨론의 편을 들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이 에돔 사람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소년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악의 그늘 아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것을 언급합니다.

헤롯 왕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생활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굶주린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통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 태어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몇 분 안에 그것에 대해 더 말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8 "멸망할 딸 바빌론아,

당신에게 갚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일에 따라.

9 네 젓먹이를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위에 부딪히게 하소서."

물론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감정이며 악한 경험에 대한 악한 반응입니다.

예뎌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저자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이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트라우마에 빠진 마음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냈다.

그들의 마음은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일에 따라" 복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에 악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을 원수와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노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분노는 쉽게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26-27을 들어보십시오.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적들과 함께 잔인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복수를 요구하고 사탄은 그 부름을 되풀이합니다.

이 저자들은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폭력에 대한 모든 죄악되고 추악한 욕망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고통받는 만큼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하고 신뢰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테반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59-60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59 그들이 돌로 칠 때에 스테반이 기도하여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외쳤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잠이 들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자비와 동정심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는 구세주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을 박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였고, 당신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완고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이 스테반이 그의 머리에 돌비가 내리는 동안 그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큰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입니다.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다섯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과 같은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줄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제안:

1. 죄를 죄로 갚지 마십시오.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했으며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17-21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지시를 들어 보십시오.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도록 주의하십시오.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20 반대로: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게 될 것입니다.”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두 번째 제안:

2. 당신의 감정을 안에 채우지 마십시오.

화를 마음에 묻어두면 비통함이나 분노가 됩니다.

당신의 어두운 감정은 지하에서 자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2:3-4을 들어보십시오.

3 "내가 잠잠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종일 신음하므로

4 주야로 당신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셨습니다.

내 기력이 쇠하여 여름 더위에 쇠약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자 그는 약해졌습니다.

감정을 묻어두는 것은 그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난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항상 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묻고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는 무관심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거나 변명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의 아들에게 그의 의로운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면 화가 날 때 아버지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제안입니다.

3.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다윗이 시편 62:8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처럼 당신이 정직하게 어떻게 느끼는지 그에게 말하십시오.

8 "백성들아, 그를 항상 신뢰하여라.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때때로 우리는 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정중하고 편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를 수정하고 어두운 감정을 제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는 악과 고통을 내면에 묻어두어야만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도 기도로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괜찮아요!

대화를 시작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기도는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6-7에서 쓴 말을 들어 보십시오.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번째 제안:

4. 원수를 대적하여 기도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비극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깊은 상처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37편이 끝나는 방식으로 기도를 끝낼 수 없습니다.

이 저자들은 그들의 적에 대항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43-44:

43 “너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당신이나 예수님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셀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분노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친구들이여, 십자가 아래 땅은 평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적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회개시키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모든 의로운 진노로 그들을 벌하시리라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원수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나 벌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다섯 번째 제안을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5. 예배에 오시고 정기적으로 라이프 그룹에 참석하십시오.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물러나고 싶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시편 137:4에서 저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노래에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감정을 노래에 쏟아 부었습니다.

로마서 12:15은 이렇게 말합니다.

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일요일 밤에 당신의 문제와 고통을 당신의 생활 그룹에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격려도 서로에게서 받습니다.

매주 이 방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사람들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24-25은 이렇게 말합니다.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려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노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국어로 기도하거나 저와 함께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한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